

#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발생한 전신적 은중독증 1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장내과  
김효욱, 권순호, 김주현, 감도희, 양종오, 이은영, 홍세용

**서론:** 피부의 과다색소 침착은 내분비 질환, 요독증, 약 및 중금속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혈액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환자의 70%에서 과다 색소 침착이 관찰되나, 정확한 원인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피부의 과다색소 침착을 주 소로 내원한 혈액 투석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피부, 간 생검 및 조직과 혈중 은농도 측정에 의하여 전신적 은중독증으로 진단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38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전신, 특히 얼굴이 서서히 검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주위에서 외국인으로 오인받을 정도로 심해져 내원하였다. 5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4년 전부터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받아 혈액투석 치료 중인 환자로, 목마른 증상의 완화를 위해 2년 6개월 전부터 하루에 4g짜리 은단을 9봉지씩 매일 복용해 왔다. 혈액 검사상 총단백 7.9 g/dl, 알부민 4.3g/dl, BUN 54.2 mg/dl, 크레아티닌 10.4 mg/dl 었다. ACTH 과 cortisol은 정상범위였다. 피부 생검상 진피내에 과립이 관찰되었고, 은 농도는 혈액 1.51 g/l, 피부조직 163.7142 g/g, 간조직 3.86829 g/g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결론:**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피부의 과다색소 침착은 흔하게 관찰되나 소견이나,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증례에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은의 지속적인 섭취가 있었던 병력, 피부 및 간 생검, 피부 및 간 조직 내 은농도 및 혈중 은농도 측정을 통하여 전신적 은중독증에 의한 피부의 과다 색소 침착이 발생하였음을 밝혀냈다. 투석치료 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는 환자의 잔여 신기능의 감소 및 혈액투석을 통한 불충분한 은의 제거 때문에 은이 체내에 쉽게 축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혈액투석 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피부 과다색소 침착의 경우 은중독을 감별 진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임산부에서 발생한 찌찌가무시병을 azithromycin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1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장내과  
박지영, 박정훈, 양종오, 이은영, 홍세용

**서론:** 찌찌가무시병의 치료에는 doxycycline이나 chloramphenicol 치료가 흔히 권장되고 있으나, 임산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방법이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임산부에서 발생한 찌찌가무시병의 치료시에는 감염증 자체 및 치료제가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Doxycycline이나 chloramphenicol은 임신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 저자들은 찌찌가무시병이 발병한 임신 36주 임산부를 azithromycin 투여로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26세 여자 환자가 내원 1주 전부터 지속된 발열, 오한, 전신 근육통을 주 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농촌에서 생활하는 가정주부로, 당시 임신 36주 상태였다. 내원 4일 전부터는 얼굴을 비롯하여 전신에 피부발진이 있었고 전신쇠약감, 두통, 어지러움, 인후통, 오심,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었다. 체온 38.3℃였으며 왼쪽 서혜부에 약 0.5×0.8cm 크기의 가피가 있었다. 혈액 검사상 WBC 7300/mm<sup>3</sup>, Hg 11.0g/dl, Hct 30.8%, platelet 112000/mm<sup>3</sup>, AST 109U/L, ALT 72U/L, ALP 212U/L, r-GT 63U/L, LDH 950U/L였다. 면역 혈청검사서 내원당일 및 내원 8일 후 시행한 R. tsutsugamushi Ab는 음성이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비장종대 보였고, 태아 상태는 정상이었다. 입원 3일째 azithromycin 1g을 투여하였고, 4일째부터 7일째까지 하루 500mg을 투여하였다. azithromycin 투여 후 발열 및 전신통의 전신상태가 호전되어 입원 9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1주 후 외래로 내원한 환자는 건강하였고, 퇴원 4주 후 분만한 태아의 발육 및 성장상태는 정상이었다.

**결론:** 본 저자들은 고열, 전신 근육통, 피부발진 및 서혜부 가피 있어 찌찌가무시병으로 진단된 임산부에서 azithromycin을 사용하여 환자의 임상증상이 완화되고 태아에도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찌찌가무시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율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임산부에서의 찌찌가무시병의 치료에 대해서도 확립된 치료법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